

# 해남, 하계 스포츠마케팅 본격화

축구 11개팀 등 573명 전지훈련 하반기까지 4만5천명 유치 목표 종목별 맞춤형 케어 만족도 향상 직·간접 경제효과 185억원 기대

해남군의 스포츠마케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하계 스포츠마케팅을 본격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축구 11개팀을 비롯해 근대5종, 육상 등 30여개 팀, 573명이 해남을 찾아 하계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인원으로는 3만 5,000여명에 이르며 하반기까지 4만 5,000명 유치를 목표로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하계 시즌동안 총 6개의 전국 선수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3개 유소년 대회, 1개 청소년 대회, 1개의 대학·일반 대회 그리고 해외

선수가 참여하는 1개의 종합경기대회가 열린다. 참가 선수들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방문율이 높은 유소년 대회 등을 집중 개최함으로써 전국대회 통한 스포츠마케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방문 선수만 3,800명, 연인원 2만 5,000여명이 방문하는 것은 물론 대회 특성상 학부모를 동반하고 있어 4만명 넘는 인원이 해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연인원 11만명 방문을 목표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9만 7,000명을 목표였지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목표대비 68%를 상반기에 달성하면서 본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기존 방문팀에 대해 훈련장을 개방하고,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시간배분과 일정 조율, 철저한 방역지침 운영을 통해 안전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또한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스포츠 전담부서를 만

들어 각 종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케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꾸준한 교류와 신뢰가 이어져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해남으로 스포츠마케팅이 몰리는 비결이 되고 있다.

올 들어 스포츠마케팅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오는 8월 말까지 해남군 선수단 숙소 예약이 끝났으며, 동계시즌 예약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올해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약 185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관광, 농수산물 유통으로 이어지는 경제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스포츠마케팅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선수들과 임원,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훈련과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2022년 전남도 전지훈련 유치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스포츠 명품고장이라는 위상을 입증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화순군이 최근 구길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 4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사진 왼쪽부터 진용태 변호사, 구북구 화순군수, 서일석 변호사, 소병선 변호사. /화순군 제공

## 화순, 고문변호사 4명 위촉

화순군이 최근 구길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 4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대리한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 법률 자문 역할도 맡는다.

최근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 분쟁과 요구사항도 증가해 사업 시행이나 처분

전 관계 법령의 해석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의 피해 방지와 사법 분쟁 최소화화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공직자는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소통해야 한다”며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미리 받아 단 한 분의 군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 완도, 여름철 농업 재해 대책 추진

완도군은 올해 평균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대기 불안정으로 극저성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2 여름철 농업 재해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에 재해별 대응 요령을 문자 및 마을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병해충 긴급 방제 등을 실시한다.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로 구성된 완도군 현장 기술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긴급 복구와 기술 지원에 나선다.

또한 일손 돕기를 추진해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재해 대응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비상 근무 체제 유지 및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재해 예방 대책 추진에 힘쓰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협을 통한 농작물 재해 보험에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최규옥 기자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이 최근 개장 17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가졌다. /장흥군 제공

#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개장 17년 잔치 ‘활기’

## 축하공연·경품추천 등 진행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이 개장 17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과 축하공연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최근 토요시장 민속광장 상설무대에서 열린 개장 17주년 기념식은 경기회복 기대하는 시장

상인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념식은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경품 추첨,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순서는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은 주5일 근무제가 시작

된 2005년 7월 2일에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국 최초 문화관광 시장’으로 개장했다. 이후 2015년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전통시장’, 2016년 ‘한국관광의 별’과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 “의로운 나주 시민을 찾습니다”

### 29일까지 3개 분야 공모

나주시가 성숙한 시민 공동체를 위해 남몰래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의인’을 추천 받는다.

나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시민 추천 방식으 3개 분야 숨은 의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사회봉사와 인적·물질 재능기부를 실천해 온 ‘나눔 실천’, 시민 안전과 생명·환경 보호에 앞장서 온 ‘생명 사랑’, 역경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희망과 화합을 전담하는 ‘희망 전파’ 등이다. 대상자는 공고일(2022년 6월 15일) 기준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기관·직장인, 민간단체 등이다.

의인 추천은 시민과 단체 누구나 추천서,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시청 총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및 우편으로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구비서류 양식 등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8월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숨은 의인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9월 정례소회를 통해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나주=이재순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다도면, 민·관 합동 꽃길조성 구슬땀

나주시 다도면은 최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2022년 민관이 함께하는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꽃길조성은 새마을부녀회원, 다도면 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나주호생태탐방로 진입로 일원 700m구간에 코스모스를 심었다. 이 사업은 행정과 민간단체가 함께

추진단을 구성, 지역 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한다. 최영숙 새마을부녀회장은 “분주한 농번기임에도 꽃길 조성에 구슬땀을 흘린 부녀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은 다도면, 아름다운 나주호 생태탐방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조충권 기자



### 무안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빈 농약병 수거

무안군 일로읍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관내 58개 마을을 대상으로 장기간 보관되거나 방치된 빈 농약병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부녀회 58여명의 회원들과 각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홍보,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하게 이뤄졌으며, 봉사자들은 마을별로

방치된 빈 농약병을 분류해 일로읍 소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모은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도록 했다. 이복례 새마을부녀회장은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깨끗한 일로읍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지급받은 장려금은 초보행사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 강진경찰서, 찾아가는 진로체험

강진경찰서는 최근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해 미래 경찰관을 꿈꾸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진중앙초에서는 평소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맞춰 동아리반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동아리 활동은 진로 체험으로 ‘추리반’ 학생들의 장래희망인 경찰관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

경찰에 대한 설명, 각종 장비 시연 및 실습을 실시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직접 전달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위동섭 서장은 “우리 미래의 자살인 아이들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